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의 공동체복합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

신 화 경(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소비자주거학전공, 교수)

이 준 민(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주거환경학전공, 박사수료)

조 인 숙(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주거환경학전공, 박사수료)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시설에 대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와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따라 초등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은 지역사회개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동체복합시설로의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복합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가 공동체 복합 지원시설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1단계로 서울시 소재의 27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복합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조사대상 사례는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는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재 학교시설 복합화 초등학교 27개 중 방문을 허락한 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복합화시설의 시설적 특성(배치유형, 진입방식, 동선체계 등)과 프로그램적 특성(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 등)을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16개 초등학교는 지역사회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기 위해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실시한 학교이나 이중 현재 6개 초등학교가 주민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들은 사업 초기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교장의 교체, 주민의 참여 저조 등의 이유로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을 통해 학교시설이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시설복합화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학교의 상급기관인 교육청에서 단순히 학교시설복합화를 위해 시설 제공위주의 사업과 함께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프로그램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복합화시설의 특징을 배치유형, 진입방식, 동선체계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면 배치유형은 별동연결형이 7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체형이 6개교, 별동형이 3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진입방식은 입구분리가 14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입구공통은 2개교로 나타났다. 동선체계는 동선일체가 9개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동선분리가 5개교, 동선접합이 2개교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 복합화 시설은 주로 별동의 시설이 학교 교사와 연결된 형태의 배치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합화 시설은 학교의 입구와 분리가 되어 있어 복합화 시설 이용 주민의 편익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되는 반면 시설 간 동선일체형이 많아 지역주민과 학생간의 소음 문제 및 이동의 불편이 우려된다.

셋째, 복합화시설의 프로그램 특성을 프로그램 종류와 프로그램 이용자 특성으로 구분하여 파악한 결과, 프로그램 종류로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금호초등학교를 제외한 그 외 학교에서는 체육관련 프로그램만 제공하고 있었으며, 그 중 수영과 헬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특성으로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학교 복합화 시설의 프로그램은 체육관련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역 주민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시설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시행하는 07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07 도시재생B02)에 의해 수행되었음.